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| |
| **경력사항** | | |
|  | | |
| 2021.06 – 2021.08  하계현장실습 |  | ㈜ 필름몽    - “스토리몽” 웹 사이트 Front-end 개발 참여.  - Spring 기반 개발. (html, css, js 개발 참여) |
|  | |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 | | |
| **학력사항** | | |
|  | | |
| 2017.03 – 2023.02  졸업예정 |  | 국립 목포대학교  컴퓨터공학과 (3.78/4.5) |
|  | | |
| 2014.03 – 2016.12  졸업 |  | 광주 대동고등학교  인문계 |
|  |  |  |
| 2011.03 - 2013.12  졸업 |  | 풍암중학교 |
|  | | |

|  |  |
| --- | --- |
|  | |
| 정원민 |
|  |
| 1998.01.28 (만 24세) |
| T 010-2828-0128 A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33 510 - 703 |
| M dnjsals1998@naver.com W https://github.com/Oh-sorry |

사진

3X4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2021.09 – 2021.12  교외근로장학 |  | 전남지역경제교육센터  - 초, 중,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교육 강의 사업 관리.  - 지역 아동센터 교육 강의 사업 관리. |
|  | | |
| 2022.09 – 2022.12  취업 연계형  장기 현장실습 |  | MCST (엠씨에스텍)  - OJT 통한 직무 교육 기반 실습 시행.  - 프로그래밍 실무 실습 및 시스템 유지 보수 교육.  - Spring 기반 개발 ( 전자 정부 프레임워크 )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| | |
| **수상&자격증** | | | |
|  | | | |
| 2021.11 |  | 셈틀인의 날 공모전 수상 | 목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|
|  | | | |
| 2021.06 |  | **정보 처리 기사** | 한국산업인력공단 |
|  | | |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| | |
| **외국어** | | | |
|  | | | |
| 2022.08 |  | 토익 | 730 |
|  | | | |
| 2019.02 |  | **토익** | 705 |
|  | | | |
| 2017.10 |  | **토익** | 815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| | |
| **병역** | | | |
|  | | | |
| 2018.07 – 2020.03 |  | 육군 | 병장 만기 전역 |
|  | | | |
|  | | | |

|  |
| --- |
|  |
| **자기소개서** |
|  |
| 저는 초, 중, 고 어릴 적에는 제 주장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흔히 다수의 여론에 휩쓸려 가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. 이게 좋다, 저건 싫다. 똑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고 다 좋다. 그런 것 같다. 등으로 넘어갔습니다. 이렇다 보니 손해도 많이 보고 살아 왔고, 제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. 로 잡아졌습니다.  그렇지만, 대학에 오고 여러 사회에 발을 들이다 보니, 내 몫은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. 내가 노력하고 굴러야 한다.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씩 저라는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 제 가치관은 “ 정답은 없지만, 오답은 있다.” 입니다.  각 사람마다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다 해주지 못하더라도, 제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제 가치관에 완전히 다가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어릴 적 자기 주장을 못하던 아이는 몇 번의 고심 끝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20대가 되었습니다.  이젠 그 답이 정답에 가까워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 이런 제 성격의 장점은 내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장점이냐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, 팀프로젝트를 하거나,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다수가 같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여러 인원들이 당황하고, 상황 대처가 안 될 수 있습니다.  저도 당연히 속으로는 같은 상황이지만, 내색하지 않고 주위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편입니다. 다른 사람들이 좀 차분해지는 것을 보면 저도 조금은 가라앉기 때문입니다. 사람은 당황하거나 상황이 급박할 때 좋지 않은 선택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. 그게 여러 명이라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럴 때 잠깐의 차분함이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 모두에게 만병통치제가 될 수 있는 이 성격이 제 장점 같습니다. 가끔 이해나 배움이 느리고 생각을 너무 깊게 하는 단점이 있지만 약 효과가 들기에는 시간이 걸리듯 저를 지켜 봐주셨으면 합니다.  감사합니다. |